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급작스러운 일이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는 김정일의 죽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의를 표하면서 문상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미래, 특히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냉정한 진단과 처방이다. 길게는 1974년부터, 가까이 1994년부터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의 죽음이 앞으로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제 막 후계자의 지위에 올라선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갈까?

작금 북한이 처한 상황, 김정일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정책, 그리고 아직까지 견제된 북한의 지도 엘리트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를 전망해 본다.

북한은 핵문제의 미해결, 북미관계의 개선,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중국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관계의 재정립 등 여러 과제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의 급격한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첫째,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과는 별도로 이들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북

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개혁·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안정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자칫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북한은 어디로

그대로 지속하면서 조심스러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김정은의 경우 그의 권력은 어찌 되었든 세습을 통해 물려받은 권력이며, 따라서 선대와 의 급격한 정책적 단절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선대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계승'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 내세운 2012년 강성대국 선로, 북미관계의 개선 등의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김정은의 권력공고화에도 도움이 되

며,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이라는 지금의 선전에도 부합한다.

돌이켜보면, 2010년 당대표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권력의 중심을 당으로 회귀시켰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은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세움으로써 후계구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장의위원회의 명단은 지난해 당대표자회 권력서열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당대표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킨

다. 이는 북한의 현 지도엘리트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를 지속하고, 이 틀에서 북한의 새로운 권력구도가 짜여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김정은의 어린 나이(29세)와 경험의 일천함은 일정기간 이미 짜여진 후견세력(리영호, 장성택, 김경희 등)의 보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북한의 지도엘리트는 운영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이 강하며, 따라서 당장 내부의 권력투쟁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별다른 대안이 없다. 김일성-김정일로의 충성심이 제1의 요건인 상황에서 생존시의 김정은이 선택한 후계자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군부 쿠데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수렴청정의 봉건적 행태가 재현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권력 엘리트 사이의 분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개혁·개척의 필요성을 두고 군부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새로운 권력구축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북한은 수렴적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기에 정치문화상 집단지도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김정은이 유일권력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후견-보좌세력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결정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곧 김정은에 대한 지도력의 검증이자 동시에 자신의 권력 강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의 칭호를 얻고 있다. 그에 대한 우상화작업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 체제로의 순조로운 권력구축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위기를 기회로 반전할 수 있는 국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실마리 찾은 군공항 이전 차질없는 추진을

8년여 동안 지지부진하던 광주 군(軍)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군용 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특별법이 26일 국회에 제출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준비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마쳤고, 여야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써 광주공항 주변에서 소음과 피해 등 생활권 침해와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온 광산구민과 전곡 33만 세대에 달하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군공항 이전 관련 모든 예산이 기존 공항의 개발이익으로 충당돼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특별법상 거쳐야 할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 지난 2009년 광주 군공항 이전 최후지로 무안국제공항이 공식 거론됐다가 무안군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원점으로 되돌려졌던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 군공항 이전은 주민들이 막대한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J프로젝트' 차라리 차기정부로 넘겨라

특정지역의 개발을 놓고 국회연구기관마다 어떻게 다른 영역 결과가 나오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영암-해남 관공제 지역 기업도시(J프로젝트) 개발 계획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영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국회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2년 전 내놓은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뒤엎는 것이다.

KDI는 지난 주 'J프로젝트' 부동지구 사업 타당성 분석 영역' 최종 보고회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1.0 이하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비율(B/C)이 1.0 미만일 때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 시행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니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동림식품부가 전남도 및 개발시행사에 부동지구 양도·양수를 위한 사전 절차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요구한만큼 이번 영역 결과로 사업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2009년 국토연

구원의 '타당성이 있다'는 부동지구 개발 계획 영역 결과만 믿고 추진에 나선 전남도로서는 '발 등에 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KDI는 영역 결과가 같은 국회연구기관으로서 어떻게 정반대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의뢰 기관에 따라 영역 결과가 달라졌던 사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J프로젝트 개발 계획은 현 정부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J프로젝트가 지난 8년 동안 좌공은커녕, 부지 담성이 없어 시행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니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J프로젝트는 전남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MB 정권 이이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한다면 차기 정부로 넘겨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다.

無等鼓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 원수의 사망은 외교가의 예사일이 아니다. 해당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야 말할 나위가 없고 바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른바 '조문 외교'를 통해 국제관계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후세인 요르단 국왕의 장례식에는 과거 세 차례나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대통령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두 나라간 평화정착을 위해 힘썼던 후세인 국왕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후세인 국왕이 죽어서도 존재역할을 한다는 말이 나왔다.

잔뜩한 월남전은 지난 1969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을 통해 종전의 물결을 트게 된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닉슨 미국 대통령의 한 시간에 걸친 회담이 키신저의 파리 비밀여행, 파리평화협정, 월남전 철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북한

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은 외교가의 메가톤급 뉴스였다. 따라서 그의 장례식 마후에서 벌어지는 외교전 또한 뜨겁다. 주도권은 먼저 중국이 잡았다. 중국은 지난 20~21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권력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마련된 김 위원장의 빈소를 찾은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중국은 일찌감치 김정일 세습체제를 인정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미국은 식량지원 카드로 북한 끌어안기에 나서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동북아 주세의 급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민간조문단의 방북만 허용기로 함에 따라 26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의 조문은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백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네팔에서 온 편지 6



박행순

네팔인 '던'을 만난 것은 약 10년 전. 광주 하남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원봉사를 할 때였다. 그는 한국에 일하러 온 첫 주에 산재 사고로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동판 찰렸다. 병원에서는 그의 잘린 손가락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임무를 끝내지 않고 엄지밖에 남지 않은 그 손의 활용도를 높여 엄지 손가락도 고심했다. 의사들은 던의 두 번째 발가락을 잘라내서 검지가 있었던 곳에 이식했다.

이식수술이 성공해서 그의 발가락이 마치 손가락처럼 움직였을 때, 그들의 기발한 발상, 탁월한 솜씨와 함께 환자를 배려

하는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다. 그의 엄지와 새 검지는 마치 한 쌍의 부부처럼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로써 함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던은 장기간 입원 중에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장애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네팔에 돌아가면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 앞에서 내뿜을 수는 없었지만 산재보험에서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던 간에, 졸지에 손과 발에 이중 불구가 된 그 젊은이가 안스럽고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파탄의대 부속병원(Patan Hospital) 복도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병원 직원 말에 의하면 이들은 한국에 근로자로 가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고 이런 청년들이 7000 명쯤 된다고 했다. 나는 불행된 던이 생각났다. 이들이 앞으

로 이국땅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일하다가 혹시 다칠까, 귀국 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 염려되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 온통 한국에 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한국어를 지금부터 열심히 익혀야 한다는 것, 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 한국에서 번 돈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신한 종자돈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궁금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온다. 던의 경우처럼 한국에 도착해서 첫 주에 산재 사고가 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도착한 이들의 마음은 들떠있고, 시작적응은 안 되고, 두고 온 가족과 집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다. 몸은 피곤한데 음식은 안 맞고, 문화적 충격은 큰데 말은 안 통한다. 공장 의 기계 소리에 혼이 나갈 지경인 이

런 모든 상황을 첫 주에 경험한다.

네팔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받거나 아예 고정적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10배 내지 20배의 월급을 주는 한국은 정말 '꿈' 같은 존재이다. 그들이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목돈을 손에 쥐고 귀국했을 때, 안타깝게도 자국에는 그 돈을 밑천 삼아 성공할 수 있는 사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그들의 공통된 문제는 번어온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게 마련인데, 예전처럼 낮은 임금 받고 일할 맘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다행히 어떤 이들은 좋은 주목을 되어 외국인들에게 세를 주는 건물주가 되기도 하고 유정한 우리말을 하며 자신의 상가에서 네팔 특산물 장사를 하는 청년도 만났다.

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발가락이 어떤 손가락을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는지 궁금하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삼천만 네팔인 중에서도 그를 알아볼 수 있다.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탄의대 객원교수)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네팔 청년들

섯째, 하구둑으로 막힌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하구둑 구조개선, 하구종합관리시스템 등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넷째, 영산강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영산강 물 환경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산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산강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애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역사, 문화적으로 영산강은 남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만큼 우리 지역민의 인식 속에 영산강은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질 악화로 잠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영산강을 예전의 맑고 깨끗한 지역민의 강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그 해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만이 영산강에 부답만을 주고 살아 가고 우리가 이 지역의 미래세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섯째, 하구둑으로 막힌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하구둑 구조개선, 하구종합관리시스템 등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넷째, 영산강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영산강 물 환경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산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산강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애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역사, 문화적으로 영산강은 남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만큼 우리 지역민의 인식 속에 영산강은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질 악화로 잠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영산강을 예전의 맑고 깨끗한 지역민의 강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그 해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만이 영산강에 부답만을 주고 살아 가고 우리가 이 지역의 미래세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원, 특별서비스 7만원 등 아홉만 문구가 적혀있다. 휴게텔과 안마방 같은 곳도 말이 휴게, 안마지 실제로는 전부 다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덮치면 문을 쾅쾅 열어 잡고 도주해 버리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고, 음성적으로 퍼져 버섯이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노리는 것이다. 대부분 업소들은 걸으면 청소년은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입소들의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요즘 노래방도 단순히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만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성접대부를 불러 화끈하게 놀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손님들이 많다. 노래방들이 이런 요구를 모를 리 없으니 노래방 역시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탈선의 장소이다.

가정에서 능숙시범이 끝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이런 유흥점에 드나들지 않도록 각별히 자녀교육에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다.

▲윤석천·광주시 남구 월산동

기고



조명현

환경부는 지난 10월 강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새로 단장된 친수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림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지역에서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광주 영산강변 산동고 친수공간에서 '강, 문화, 사람 그리고 어울림' 행사를 치른 바 있다.

당시 행사장 바로 옆을 흐르는 영산강은 유량도 적고 수질도 좋지 않아서 강 이용의 확대라는 행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영산강은 이용을 권장하기도 곤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영산강 전체의 수질을 살펴보면, 발원지

를 맛보고 싶어할 것이다. 이를 매일수목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도심에는 대표적으로 퍼져 있는 게 키스방, 유사 성행위업소, 출장 성매매업소 같은 것 들이다. 능능 뒤에 마땅한 놀이문화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이런 곳을 드나들 수 있다. 업소들이 뿌린 전단지들 보면 기본 6만

능능 이후 학생 탈선 막도록 자녀교육 신경써야

아침 출근길에 제일 먼저 밟히는 게 바로 유흥가 전단지들이다. 눈뜨고 보기에 민망한 컬러 사진, 8등신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누굴 유혹하려고 전날 밤에 이렇게 많은 전단지를 뿌려 뒀을까.

고3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마쳤던 때 수능 전까지 시험 때문에 옥죄어 있던 아이들이어서 이젠 그 누구보다도 큰 해방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광주광역시 동구 남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주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